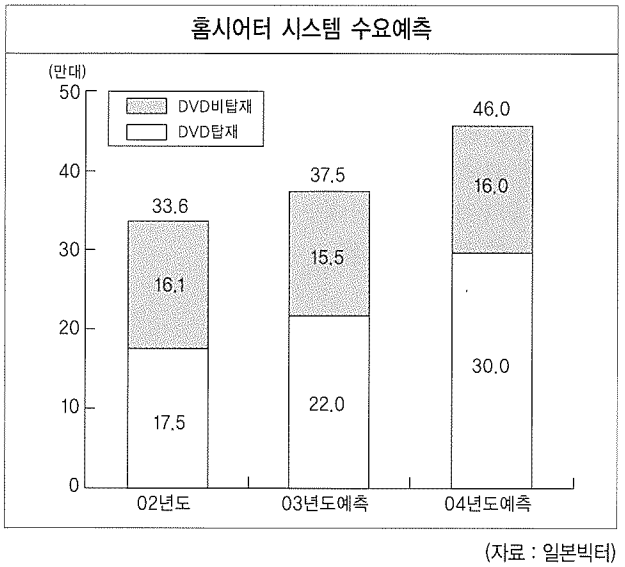
일본 홈시어터 수요 동향

편 집 실

DVD의 고보급, 플라즈마TV 등 대화면TV의 인기와 하이비전 방송의 충실 등을 배경으로 영화관과 같은 생생한 느낌을 즐길 수 있는 홈시어터의 수요가 늘고 있다. 소리와 영상이 융합한 이 시어터는 향후 AV홈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홈시어터 시스템



(자료 : 일본빅터)

'홈시어터'의 엄밀한 정의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디지털TV나 PDP TV, 액정프로젝터 등 대화면TV에 DVD플레이어, AV앰프, 스피커시스템 등을 접속하고 멀티채널로 재생하는 AV장치를 말한다.

홈시어터는 원래 영화 애호가가 많고 주택이 넓은 미국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그 파장이 일본이나 유럽, 중국, 아시아로 확대되고 있다. 이 시어터 시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DVD플레이어와 동 소프트의 보급이 크다.

1997년에 등장한 DVD플레이어는 북미가 선행하는 형태로 급속히 보급되어 일본에서도 2003년말에는 누계보급이 1천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세계에서는 1억 5천만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DVD소프트도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저널에 걸쳐 일본에서도 8천타이틀 이상이 발매되기까지 했다. DVD소프트에 기록된 5.1ch의 멀티서라운드를 대화면으로 보면서 박력과 생생한 느낌 넘치게 즐긴다. 영화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한번 시청하면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된다.

DVD는 재생전용의 플레이어부터 녹화까지 할 수 있는 레코더, DVD 레코더와 HDD 레코더나 VTR과의 복합기, DVD 플레이어 탑재 미니콤포, DVD오디오 등, 응용제품이 확대되어왔다.

모두 기본적으로 DVD소프트 재생이 있고 DVD를 핵으로 한 홈시어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한마디로 '홈시어터'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요구는 다양하다. 본격적인 멀티채널재생에 대응한 AV서라운드앰프, 심지어 스피커시스템 등을 단품으로 갖춘 마니아와 같은 이용자에서부터 이들 단품을 세트로 한 시스템을 구입하여 즐기는 이용자 등 가지각색이다.

또한, 최근엔 PC에 DVD 드라이브가 탑재되어 DVD소프트를 즐기게 됨에 따라 퍼스널시어터, 데스크탑 시어터로써 PC대응 멀티채널 시스템도 확대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홈시어터 이너박스'라 불리는 DVD 플레이어에 리시버나 앰프를 내장해 서브우퍼까지 설치한 스피커시스템의 1세트나 AV앰프, DVD 플레이어, 스피커시스템 등 단품콤포를 원패키지로 한 시스템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용자는 구입 후에 PDP TV나 프로젝션TV 등을 접속하면 본격적인 시어터를 즐길 수가 있다. '홈시어터 이너박스'도 미국에서 보급된 상품이다.

미국에서는 97년경부터 상품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CEA(미국가전협회)에 의하면 2000년 160만대, 2001년 225만대, 2002년 279만대까지 확대되고 2003년은 308만대까지 증가했다. CEA에서는 2004년의 수요를 331만대로

예측한다.

일본에서도 '홈시어터시스템'의 시장이 확대되어 업체 측근에 따르면 2001년 7만 5천대, 2002년 20만대, 2003년 30만대로 추이, 2004년은 한꺼번에 50만대로 증가할 것을 예측하는 업체도 있다.

'손쉽게 DVD소프트를 즐기고 싶다'는 이용자를 위해 DVD플레이어를 탑재한 MD미니콤포가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상품화되어 인기를 모으고 있다. 동 MD미니콤포를 휴대TV에 연결하면 간편하게 좋아하는 DVD소프트를 즐길 수 있다. 음성은 2채널이지만 유사한 서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제품도 늘고 있다.

홈시어터는 방의 크기에 따라 설치 시스템이 다르다.

업체에는 '홈시어터를 즐기고 싶지만 어떤 시스템을 설치하면 좋을 것인지'를 질문하는 자가 많다고 한다.

홈시어터는 5.1ch를 시청할 경우, 6개의 스피커를 설치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시청하는 위치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크기의 스피커가 설치될 지를 검토해야만 한다. 심지어 스피커 능력에 대응하는 파워나 서라운드기능 등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야마하의 경우,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엔조이파' '하드마니아' 'PC 엔터테인먼트파'로 크게 나누어 각각의 요구에 맞춰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엔조이파'는 렌탈비디오?DVD가게나 CD점, 디지털위성방송 등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용자로, DVD일체형 시어터 패키지나 TV위에 올려놓고 간편하게 5.1ch을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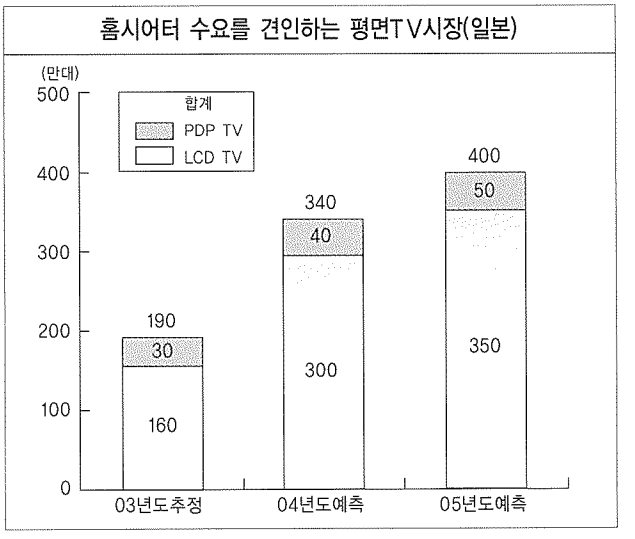
'하드마니아'는 단품모델을 음미하여 구입하고 각별히 애장하고 있는 이용자로 같은 부류끼리의 프레그쉽 모델인 DSP AV앰프 등의 '시네마콤포'군을 권장한다. 게다가 PC나 인터넷을 생활의 일부로써 사용하고 영화나 음악도 PC환경으로 자유로이 즐기고 싶은 'PC엔터테인먼트파'에는 PC대응의 홈시어터 사운드시스템 등의 라인업으로 제안하고 있다.

최근의 움직임으로는 스피커의 신호전송을 와이어리스로 하고 배선의 번잡함을 없앤 제품이 늘고 있다. 본체와 스피커 시스템을 5㎓대 와이어리스규격의 무선기술(IEEE802.11a)나 2.4㎓대의 동 규격(동 802.11b/동 802.11g)으로 연결함으로서 설치프리를 실현한다.

홈시어터의 인테리어성을 요구하는 이용자도 증가하였다. 이 때문에 PDP TV를 열심히 연구하거나 랙의 인테리어성을 높이는 움직임도 있다.

홈시어터 사업확대를 위해 기존 오디오 전문업체가 영상부문에도 진출하기 시작했다. 야마하는 이미 액정프로젝터에 참여하고 데논도 2003년부터 DVD레코더에, 2004년부터는 액정TV에도 참여한다. 홈시어터효과는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 AV업체의 사업확대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플랫패널TV



(예측은 메이커 예측 평균치)

홈시어터를 구성하는 데에 디스플레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홈시어터수요를 억제하고 있는 요인의 하나로는 액정이나 플라즈마의 플랫TV시장이 확대된 점을 들 수 있다.

2003년 12월, 지상파 디지털방송이 3대 도시권에서 시작해 2007년에 걸쳐 전국에 서비스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 CS, BS, 110도 CS로 진화된 일본 디지털방송은 지상디지털이 추가되어 모두 디지털화됨에 따라 2010년경에는 현행의 아날로그방송이 중단된다. 방송의 디지털화에 병행하여 TV의 디지털화와 평면화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지상파 디지털방송은 BS디지털방송과 마찬가지로 하이비전의 선명한 영상미에 있다.

화면은 기존의 종횡비 4대 3에서 16대 9가 표준이 됨으로써 큰 TV화면으로 선명한 영상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매력이다. 프로그램의 50% 이상이 하이비전으로 방송된다. 음성도 CD만큼의 선명한 고음질로 방송된다. 5.1ch 채널 서라운드 방송이 표준화되어 음성도 전후좌우에서 들리기 때문에 마치 영상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 압도적인 생생한 느낌을 체험할 수 있다.

지상디지털방송 대응 TV에서는 그대로 홈시어터를 즐길 수 있다.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실시는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2011년 7월 24일에는 지상파디지털방송으로 완전 이행됨에 따라 현재의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될 예정이다.

총무성에 따르면 12월의 서비스개시 시점에서의 수신가능세대는 관동지역, 중경지역, 근기지역을 포함해 1200만세대로 1년 후의 2004년말에는 1700만세대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한다.